

## 기타코가네 패총

홋카이도 다테시에 있는 기타코가네 패총은 기원전 5,000 년~3,500 년경의 유적입니다. 이 유적에서 출토된 대규모 패총(조개무지)과 여러 구의 인골, 다양한 인공물은 복잡한 형태의 제사가 이곳에서 행해졌음을 말해줍니다. 이 유적은 해안에서 수백 m 떨어진 우치우라 만에 면한 언덕의 경사면에 자리하고 있습니다. 이 유적의 입구에 마련된 박물관에서는 다국어로 된 정보를 제공하고 전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.

### 패총의 출토품

기타코가네 패총에서는 총 5 개의 패총이 발견되었습니다. 이들 패총에서는 해양성 쌍각류, 굴, 성게의 껍데기와 물고기, 물개, 고래, 사슴 등의 동물뼈가 확인되었습니다. 패총 내부와 아래에서 무덤 구덩이가 발견된 것으로 보아 이 패총은 중요한 제사를 지낸 장소였을 것으로 추정됩니다. 한 패총에서는 의식에 따라 매장된 14 구의 인골, 그리고 고래뼈와 사슴뿔로 만든 장식이 달린 손가락이 출토되었습니다. 다른 패총에서는 의도적으로 늘어놓은 듯한 사슴의 두개골이 발견되었습니다.

### 패총과 해안선

패총은 언덕 중턱에 구성되어 있는데, 총 5 개의 패총 중 가장 오래된 것이 가장 높은 지대에 있고 그 외 패총은 시대의 흐름에 따라 점차 낮은 위치로 옮겨가고 있습니다. 즉 패총이 만들어졌을 당시에는 해안과 가까웠지만, 서서히 기후가 서늘해지고 해수면이 낮아지면서 약 1,500 년에 걸쳐 해안선이 물러난 결과, 현재와 같은 배치를 이루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.

### 식재료와 생활

출토된 인골을 연구한 결과, 기타코가네 패총의 사람들은 육류보다 생선을 더 많이 먹었고 나무 열매는 그다지 많이 먹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이 인골에는 물고기나 다른 해양 생물에서 유래한 단백질이 다수 포함되어 있었습니다. 충치는 나무 열매를 많이 먹었다는 사실을 말해주는데, 이 유적에서 발견된 치아에는 충치가 전혀 없었습니다.

아마도 이 사람들은 물고기를 잡아 먹으며 생존을 이어갔던 것으로 보입니다. 패총의 여러 곳에서 그물에 다는 석제 그물추, 뿔로 만든 낚싯바늘과 작살 끝 등의 도구가 발견되었습니다.

### 제사와 관련된 석기의 출토

이 언덕 기슭에 있는 샘 근처에서 대량의 석기가 발견되었습니다. 여기에는 갈돌, 갈판 등의 석기가 뚜렷이 보이는 위치에 묻혀 있었습니다. 이들 대부분은 의도적으로 부수거나 일부러 파손해 버려진 것처럼 보입니다. 어쩌서 이런 방법으로 버렸는지는 알 수 없지만, 이들 도구 자체가 마을에서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물에 감사의 마음을 표하는 등 당시 사람들에게는 나름대로 상징적인 의미를 가진 의례의 한 방식으로 버려진 것으로 추정됩니다.

#### 기타코가네 패총 정보센터

기타코가네 패총 정보센터에서는 이 유적에서 출토된 유물과 패총 한 곳의 실제 절단면을 전시하고 있으며 절단면에 드러난 뼈와 조개껍데기의 종류를 일본어와 영어로 표시하고 있습니다. 이 센터에 전시된 출토품으로는 뿔이나 뼈로 만든 장식품, 뿔로 만든 돌살촉과 작살 끝 등의 사냥용 도구, 그리고 무언가를 갈거나 으깬 때 사용하는 받침대인 갈판과 위에서 내리누르거나 찌는 용도의 갈돌 등이 있습니다. 체험 코너에 전시되어 있는 갈돌은 직접 손에 들고 자유롭게 사용해 볼 수 있습니다. 센터 입장은 무료입니다.

#### 관련 유적

이리에 패총[링크]과 다카사고 패총[링크]이 기타코가네 패총에서 차로 30분 거리에 위치해 있습니다. 우치우라 만 반대편에는 오후네 유적[링크]과 가키노시마 유적[링크]이라는 대규모의 유적이 자리하고 있는데, 이 두 곳에서 출토된 유물이 하코다테시 조몬문화교류센터[링크]에 전시되어 있습니다. 이러한 관련 유적을 함께 살펴보면 선사 시대 일본 북부에 살았던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좀 더 넓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.